

# SANTO DOMINGO DE GUZMÁN

## 2020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 축일이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그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자비의 응답이 되고자 했습니다.

복자 삭소니의 조르단은 성인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한 열정과 초자연적 열성으로 불타올랐고, 한없는 애덕과 열렬한 영을 지녔습니다.” 그는 성 도미니코에게서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특징을 강조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삶에서는 언제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함께 갑니다.

성 도미니코에게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기쁨, 현실성, 동정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특히 동정심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성 도미니코는 어렸을 때부터 동정심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자신 안에, 다른 사람들의 비참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곤궁한 이들에 대하여 큰 사랑을 느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미니코가 팔렌시아에서 공부하던 때에 기근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인 책까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팔 수 있는 것이 더 없었을 때 그 자신을 노예로 팔려고 했던 장면은 더 극적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는 몰이해와 비판을 겪었고, 이에 대해 친절과 평화로 응답했습니다. “내 집 안에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이들 안에서 굶주림을 겪으실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도미니코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가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는 한 장면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는,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의 가난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의 감수성에, 우리의 연대성에, 우리의 애덕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은 더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놓게 하는 긴급한 호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 전염병의 결과를 겪는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의미에서 자비와 동정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의 고통스런 긴급 상황은 우리의 동정심을 요청하고, 그것은 더욱 서로 연대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고통받는 우리 우리 형제들 모두를 위한 투신을 내포합니다.

우리는 더 인간적이고 형제적인 세상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모델로 바라봅시다. 그 공동체는 기도, 성경 읽기, 빵을 나눔, 그리고 아무도 어려움 속에 버려지지 않도록 재산을 가진 이들이 그것을 나누는 데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사도 2,42-45).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희망이 강해지고 우리의 사랑도 커질 것입니다.

기쁜 성 도미니코 축일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포용과 기도를 보냅니다.

*Sor M<sup>a</sup> Asunción González, O.P.*  
Sor M<sup>a</sup> Asunción González, O.P.  
Priora General

